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인천공항에서 4시간 비행을 마친후, 클락공항에 내렸다. 새벽인지라 매우 졸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서의 첫 여행이라고 생각하니 매우 떨렸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 지도 아래 버스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간단히 slc 센터 선생님들, 제이콥 이사님을 만났고, 4주간 같이 생활하는 룸메이트가 누군지 또한 알수있었다. 그렇게 버스로 1시간 정도 달린후, 우리는 slc 센터라는 곳에 내렸다. 규모는 5층 까지 있는 건물이었고 우리는 4층에서 거주 했다. 시설은 조금 오래되었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방 하나에 침대 3개, 책상 3개, 그리고 화장실이 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업은 오자마자, 그 다음날 레벨 테스트 라는 것을 본다. 이 레벨 테스트로 등수를 매겨서 그룹을 정하게 된다. 수업은 8시부터 5시까지 8시간 수업을 받게 되는데 그룹4시간, 개인별 수업 4시간으로 이루어진다. 8시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느껴지겟지만 그룹별 사람들과의 호흡, 선생님과 수업방식 조정으로 하루를 좀더 재미있고 보람차게 만들 수 있다. 책은 그날 나누어주며, 개인별의 경우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편하게 바꿔도 된다. 숙제는 거의 없는편이다. 토익스피킹, 문법, 단어 등 체계적인 제도 아래 부담 없이 수업이 진행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우선 엑티비티는 요트체험, 마닐라 체험, 암바야 코브 등이있었다. 첫 번째 요트체험에서는 요트 하나를 빌려서 다같이 타고 왔는데, 사진찍기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학연수라고 해서 편한 복장만 가지고 왔었는데 다시 온다면 인생사진 건질 수 있는 이쁜옷 하나 쯤은 챙겨오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요트 체험에서 수영 또한 할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그안에서 효율적으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마닐라 체험인데 마닐라체험을 통해 마닐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필리핀 현지 경험을 할수 있어 재미있었다. 하지만 필리핀 마닐라 라는 도시가 수빅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소지품에 있어 조금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암바야 코브는 수영장과 바다가 있는데 풍경이 매우 좋다. 하지만 밥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그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멋진 풍경과 그 풍격속에서 같은 수기 사람들과의 추억은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서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날씨는 덥고 습하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거의 틀어 놓기 때문에 추울 때도 종종 있다. 반팔, 반바지 뿐 만아니라 긴팔 ,긴바지도 몃개 챙기면 더좋을 것 같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현지 안전상황은 치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는 괜찮았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항상 조심해야할 필요성은 느꼇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외부 숙소( ) 기타( )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 시설은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좋았고, 분위기는 룸메이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분위기는 한명이라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서로 챙겨주는 모습에 정말 좋았고, 유의사항은 각별히 없는 것 같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기타(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식사는 숙소 수영장 근처 급식실? 같은 곳에서 하게 되는데 한국음식으로 나온다. 맛있는 반찬으로 우리 룸메이트들과 감탄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에 남는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FB와 택시가 주요 수단이다. FB를 타면 13페소로 매우 싼 가격에 탈수 있다. 시내는 하버포인트와 SM으로 근처 맛집과 마사지등 싼값에 질좋은 구경을 할 수 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	30만원	
마스터 카드	10만원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출국전 준비사항은 필리핀 날씨가 덥고 습하다고 해서 반팔, 반바지를 챙기는 것도 좋지만 새벽이나, 에어컨을 틀다보면 추울수도 있으니가 긴팔, 긴옷 하나씩 챙기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암바야 코브 들어갈 때 수영복 조건이 매우 까다로울 잇으니까 수영복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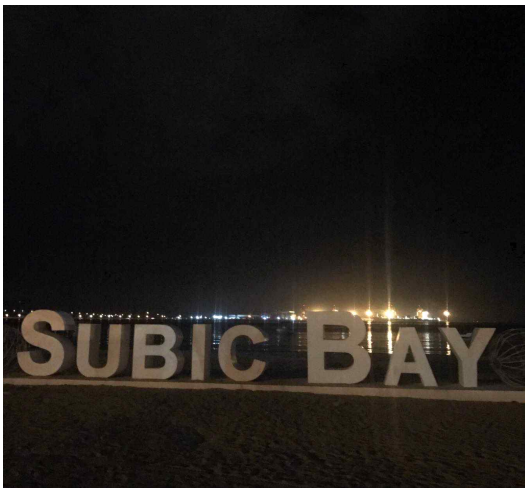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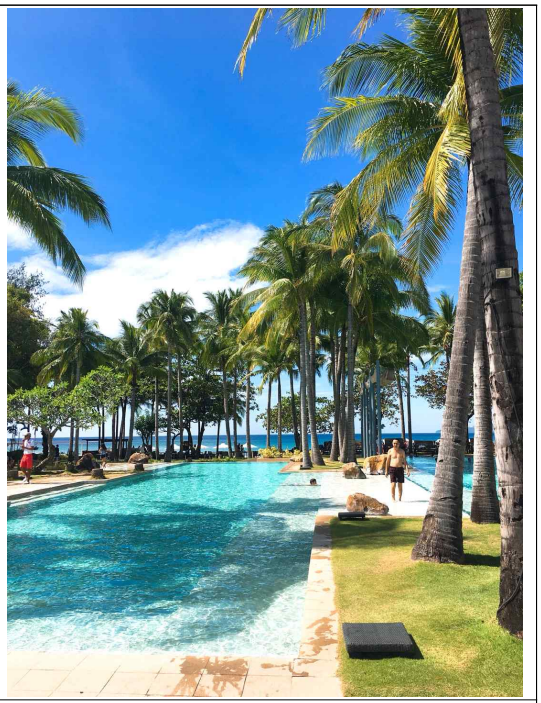
생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외에는 어학연수 준비과정에 있어서 제이콥 이사님 말만 잘 따르면 재밌고 값진 경험 할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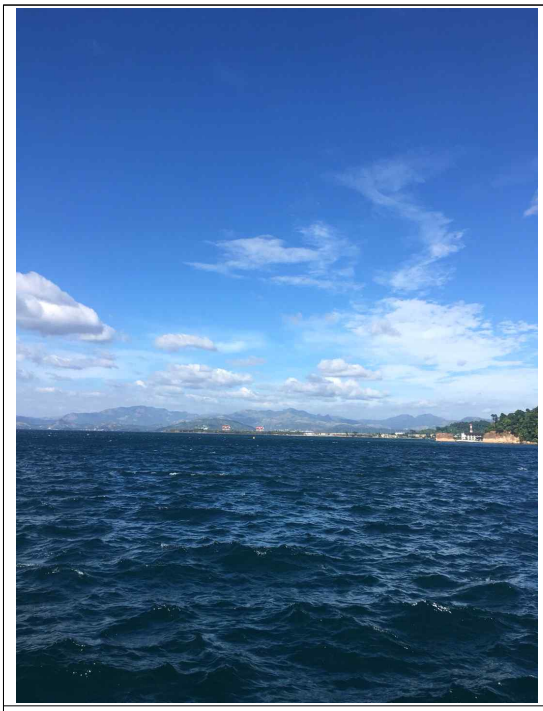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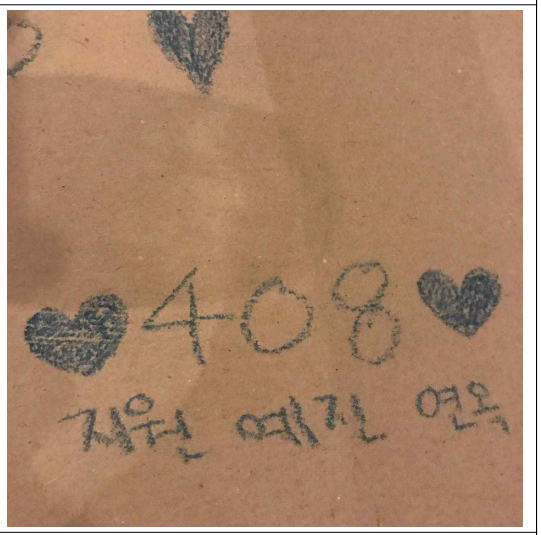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에 어학연수라고 해서 부담이 된 것은 사실 이었다. 하지만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오빠, 언니들 밑에서 값진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 레벨 테스트를 보고 그룹이 만들어졌다. 그룹이라고 해서 혹시나 성격이 안맞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들었는데 사람들 한명한명 성격 보고 뽑았나 할 정도로 너무 좋았고, 개구쟁이에 시끄러울 수 있는 나를 다 받아주고 케어해준 언니, 오빠 친구들 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또한 선생님들께도 진심의 감사인사를 전해 드리고 싶다.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신, 로즈 티처는 정말 열정적인 분이셨다.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셨고, 공부의지를 불태어 주신 분이기도 했다. 또한 조 티처와는 울기도, 웃기도 많이 한 잊을수 없는 선생님 이시다. 마지막 졸업식때 영상편지보고 감동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잘 이끌어 주셔서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설픈 영어 덕에 땡큐 만 얘기하고 온 것이 살짝 아쉬웠다. 그리고 항상 파이팅 넘치신 에릭선생님, 지루하지 않게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데이브티처, 귀엽고 발랄하신 엘제이샘 ,토익스피킹 가장 힘든 과목이었지만 포기 하지 않고 이끌어주기 이안 티처 너무 감사드리고 기억에 남을 것이다. 또한 408호 예진언니와 지원이… 기숙사경험이 많은 나지만 이렇게나 잘맞고 착한 나의 룸메이트였다. 정말 솔직히 단기어학연수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고 , 기회가 된다면 같이 간 수기 선배들과 후배들과 다같이 한번 더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또한 향후 계획은 영어 공부를 포기하지않고 열심히 계속 이어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영어를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수빅베이		암바야 코브

		
카바야 비치		텍사스 조
		
그림자 놀이		잊지 못할 408호